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82
2024.4.7.

오늘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_ 베드로전서 1:2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4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 5 | 여전도회 | 7 | 십자말씀이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5 | 세례입교소감 | 6 | 교회사용설명서 | 8 | 설문조사 심층분석 |

무지개잔치
전교인 공모전
공개투표

새 이름을 부탁해

가장 마음에 드는 새 이름 제목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인 1표]

함글마당

한마음 잔치

주님과함께 잔치

두드림(Do Dream)

무지개잔치

주님의교회 무지개잔치 준비위원회

4월 7일(주일), 1층 로비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③

보내고 보냄받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곧 좋은 소식의 담지자가 되어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선교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고 보냄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가 되도록 요구한다.

• 구약의 보내심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것은 흔히 그분의 구출과 구원의 대행자로 행동하는 것이거나, 누군가가 들을 필요가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이 보내심의 분명한 목적, 즉 생명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려고 보내신다.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말하기 위해 보내심 전달자들은 본질상 보냄받는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자를 대신해서 말한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요 목적은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과제도 받았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더 자주 하나님의 보내심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예레미야서를 선교적으로 해석하려면 전달자가 치러야 하는 선교적 대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 예레미야,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수용이나 사명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부 열매를 맺는, 완전한 선교사다.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보내심이 있다.

구원과 계시를 위해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말씀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사람들의 수원지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의 최소한의 의미는 보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권위 있는 보내심 보냄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임재와 권위를 구현한다.

보내심과 고난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냄받는 것은 커다란 영예와 책임을 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대개 고난, 거부, 박해, 때때로 죽음을 포함했다.

• 보내시는 하나님

실제로 보내는 것은 삼위의 세 인격 모두의 활동이다. 세상과 관련하여 하나님 자신 안에는 선교적 역학이 있다.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고 임명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령과 사도들을 보내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 및 계시와 관련된 특정한 선교적 과제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 또한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보내신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과 함께 또는 성령의 권능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님의 선교는 바로 성령의 기쁨

부으심에 의해 그분에게 부여된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은 사도들을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교회 자체가 세운 어떤 외적 구조가 아니다. 선교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내고 보냄받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과 그분의 진리의 계시를 위해 행하셨으며 또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보냄과 보냄받음의 역학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사도들

열두 사도 보냄은 지리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과제를 위해 위임받거나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보냄을 받는 것은 사도직의 본질에 속했다. 예수님은 열두를 택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추종자와 학습자로서, 그들은 사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

사도 바울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대면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인생 나머지를 차지하는 선교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삶 전체는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베드로 및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사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다.

사도적 우선순위 ‘섬기는’ 또는 ‘사역하는’이란 단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둘 다에 사용된다. 그것들은 둘 다 교회의 사역이었다.

•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들의 특징

안디옥은 북서 지역 선교의 중심지가 된다. 그 교회는 인종적으로 잘 섞이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과 예언, 가르침, 분별의 은사를 행사하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 더 먼 서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중심지가 된다.

요한삼서 - 이중적 신실함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로 요한삼서를 받은 공동체가 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 진리에 대한 신실함과 형제자매들(선교사들)에 대한 신실함. 둘 다 선교에 헌신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선교는 진리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진리를 행하는 교회다.

보냄 요한은 보내는 일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들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전송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대하라는 뜻이다.

감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세상에 나간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다.

후원함 기독교적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는 자들을 후원할 의무가 따른다. 후원하는 일에는 관대하게 주는 것이 포함되며,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주요 부분이다. 선교사들이 진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선교의 책임과 특권이다. **함글함글**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찬양대

진짜 찬양대원을 위한 지혜 - 찬양대 십계명

1.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은 그저 목소리가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오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찬양대로서 찬양을 올리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 그것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매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러진다면 매주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하지 마라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다. 찬양대가 수고했다고 격려로 박수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박수인지 말이다. 대부분 그 의미는 전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오직 한 분을 위해서임을 매사에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음이나, 가사에 도취해서 감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절제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올려드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 감정으로만 흐르는 찬양으로 찬양대나 구성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3. 은혜로 찬양하라

찬양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 찬양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찬양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능력이요, 힘인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은 인간에 의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찬양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다. 매주 들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찬양대 스스로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

4. 은혜로만 찬양하지 마라

찬양대는 자신의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찬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받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찬양이 그저 마음으로 가진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온 몸으로 드리는 영광스런 찬양이 되는 것이다.

5. 특별의식을 가져라

찬양대원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찬양대는 스스로가 특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되지 않는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의 삶까지도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하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영혼과 몸, 그리고 마음과 의지를 절제하여 주님께 올린다는 것이다. 찬양대는 귀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음악으로 찬양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중을 이끌어야 한다. 찬양대는 설교자와 같은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6. 특권의식을 버려라

찬양대로서 가지는 가장 큰 위험과 오류인 스스로의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그 곡조와 노래가 자기가 부르는 것인 양 착각한다. 그 목소리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더욱 겸손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그러한 특권의식은 없어질 것이다. 찬양하는 자에게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이다.

7. 공동체적 사명을 가져라

찬양대는 함께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서는 찬양대 스스로의 멤버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몸'으로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될 것이다.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성도들은 그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주일마다 보게 된다. 그렇다면 찬양대 각인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도와 찬양대의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한 영광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찬양대 스스로의 친화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멤버십을 가지는 공동체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찬양대의 노래는 교회 내의 잡음을 불식시키며 미움의 요소를 몰아내며 교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평의 무드를 조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8. 공동체만을 위하지 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 안하는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온전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찬양대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일이다. 찬양대가 범하기 쉬운 문제 중의 하나가 찬양대를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찬양대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자가 찬양대가 되어야 한다. 봉사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봉사란 희생을 전제하며, 사람들 앞에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봉사가 아니다.

9. 즐거워하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 기쁨은 자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일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녀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반응이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대의 삶은 찬양 그 자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몸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10. 즐기지 마라

찬양을 유행가 가사처럼 흥얼거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로도 사용하면 안된다. 오직 한 분께만 영광이 되는 찬송이어야 하고 찬양이어야 한다.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찬양을 감정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즐겨서는 안된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함줄함울 / 찬양대 십계명(김동기, 황하운, 나눔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하나님의 눈먼 사랑’,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다짐했던 새해의 결심이 어느새 희미해질 즈음, 찾아온 사순절이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렸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의 자리였습니다.

사순절이란 절기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묵상하며,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지독한 사랑에 중독되어 나의 마음과 영혼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세상과 벗하고 사랑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라고 특새 때 만난 어느 집사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움직였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습니다. 이번 특새에서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먼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것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말씀을 전하신 김창근 목사님께서서는 첫째 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부족함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광야의 축복”이란 주제로 전하신 말씀에서 광야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자리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시는 자리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필승 전략”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까지 순종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사랑과 신앙의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한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디테일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하신 임성빈 목사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보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믿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일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그분의 나라

를 추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말을 넘어서, 행동과 결정,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보여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것

특새 마지막 날,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예수님의 눈먼 사랑”은 모든 사람이 죄,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단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와 잘못이 아닌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새겨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번 특새 주제인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마음에 깊은 찰림과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에 잠시 둔 감했던 저를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원한다’라는 단순한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대해 개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 깨달음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매 순간에 적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부담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어려움과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이번 특새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한 지식이나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으로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세례소감

나이를 먹을수록 신에게 의지하라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게 된 배경

그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웃에 사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의 권유로 주님의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박원호 목사님의 고별설교 때였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이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니 목사님들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는 밖에서 듣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 교세를 과시하는 듯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교회는 건물 무소유를 말하며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의 절반을 사회 봉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서 다른 교회와 차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세라는 고령에 세례를 받게 된 이유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다시 출석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 중 황바울 목사님과 박주영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배윤환 목사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 뜻깊습니다.

세례교육과 세례를 받으며 느낀 점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께 ‘나이를 먹을수록 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를 받으며 교수님 말씀이 더욱 생각났습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재근** 성도 / 4교구

입교소감

내 의지로 하는 신앙고백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여럿 그렇듯 제 의지로 교회를 처음부터 다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외할머니와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입교교육을 받으면서 배우거나 깨닫게 된 점

교회, 세례, 복음, 은혜, 기도 등 평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8-9를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날에 “~해서 하나님이 기

뻘하실 거야”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교 후 달라진 점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에 입교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입교를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입교 교육을 받으며, “아 내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구나”를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각오와 기대하는 점

제 의지로 신앙고백을 한 만큼 더욱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러 가는 것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매주 떡과 차를 준비해 주시고 세례자와 입교자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분들처럼 봉사하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민정** 성도 / 1교구

여전도회

여전도회 사역 소개

주님의교회 여전도회는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성인 여성 교인들로 선교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에 헌신 봉사함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 주님의교회 여전도회는 1월14일 배윤환 담당목사와 교문으로 최재경 장로, 1~6여전도회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2024년의 사역 일정을 시작하였다. 2월14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모임에는 총45명의 임원 대부분이 출석하여 2024년도 사역 내용을 서로 나누고, 3월 연합예배에서 부를 특송 연습과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회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2월18일과 25일에 이루어진 회원 등록 기간에는 총 105명의 새로운 회원이 등록하여 등록회원 500명이 넘는 여전도회가 되었다. 3월13일 첫번째 연합예배에는 등록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고, 예배 후 3여전도회의 수고로 국밥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한 후 각 여전도회별로 모여 교제 시간을 가졌다. 3월 20일에 드려진 남녀선교회 헌신예배에서는 찬양대석이 비좁아 회중석에까지 앉을 정도의 많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였다. 부활주일을 앞둔 3월30일 새벽 기도 후에 남녀선교회와 청년부와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였는데, 준비를 위해 모인 식당을 꽉 채운 많은 분들의 수고로 짧은 시간에 청소가 수

월하게 끝날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는 여전도회는 4월과 5월 중 협력교회 방문을 앞두고 각 여전도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협력교회’라 함은 주님의교회에서 임기를 마치신 부목사님들이 개척 혹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일컬으며, 현재 6개의 전도회가 6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각 여전도회별 연락처 및 협력교회는 8면 하단의 ‘표’참고)각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아보며 무엇을 도울지를 살피는 ‘찾아가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은 마치 친정 식구가 온 듯 반기며 위로와 받고, 해당 교회의 교인들도 특별한 감동이 있는 시간이라고 전해 듣고 있다. 교역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주님의교회 특성상 앞으로도 이 사역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며, 초기에 지원을 받던 교회가 양보하여 새로운 교회를 지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적은 물질이지만 사랑을 담아 전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표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 감동을 받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언제라도 환영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여전도회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영숙** 권사 / 여전도회 연합회장

교회사용설명서

심방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심방’이라는 말도 요즘은 주로 교회에서 사용됩니다. ‘심방(尋訪)’은 ‘찾을 심(尋)’, ‘찾을 방(訪)’을 붙여 ‘찾아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1930년대 <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소설 <영원의 미소> (1933~1934)에 “일 년에 한 번 한식 때에나 누이의 심방을 받는 최용준의 무덤은 벌써 못해서 뗏장이 반이나 벗겨지고 묘표가 비스듬히 쓰러졌다”라는 문장이, 박태원의 <천변풍경> (1936~1937)에 “그는 응당 외로이 있을 계집이 자기의 뜻하지 않은 때의 심방을 기뻐하려니 하고”라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사회에서도 ‘찾아간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심방’이라고 하면 교회의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위해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정개역 성경>에는 ‘심방’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개역한글 성경>에는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오 일을 유할새”(갈라디아서 1:18)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방’은 ‘방문’(개정개역)이나 ‘만남’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목양하다’, ‘보살피다’, ‘방문하다’, ‘돌보다’의 의미로, 기독교적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개별적 상황에 처한 피심방자를 찾아 신앙적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뜻합니다. 기독교에서 심방의 전통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와 세리의 집을 찾아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심방이 교구 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마르틴 루터의 개혁교회에서부터 성경적 의미의 본질적인 심방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온 최초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지도자가 교인 가정을 찾아 돌보면서 심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심방은 어쩌다 들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방문’을 의미합니다. 심방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인은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목회자를 맞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서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심방도 이루어집니다.

사용 방법

심방은 보통 목회자가 인도하는 말씀, 가정에서 내놓는 기도 제목, 교제를 위한 다과 나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되도록 온 가족이 모여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자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교회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보통 한국 교회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심방을 시행할 때 ‘대심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에서도 일반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방의 범위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시기에 큰 규모로 실시한다는 뜻에서 ‘대(大)’자를 붙여 쓰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大)’라는 접두사는 ‘큰’, ‘대단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심방은 ‘소(小) 심방’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데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심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어서 크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행하는 심방과 굳이 구분하려면 ‘정기 심방’(정기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심방’(전체적이라는 점에서), ‘춘계 심방’(정기적으로 봄에 한다는 점에서)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오해하기 쉬운 말

교회

‘교회’가 건물을 가질 수 있지만 건물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지칭이며,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세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기독교 / 예수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와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의 한자 음역(기리사독)을 줄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는 아랍어 ‘예슈아’의 라틴어 발음인 ‘예수스’ 혹은 이탈리아어 발음인 ‘제수’의 한자 음역(야소)으로서, 기독교와 예수교는 의미가 같습니다. 크리스토스(그리스도)는 예수의 직임이고 예슈아는 그리스도의 본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 성서

‘성경’이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책 중에서도 성인의 말씀을 적었거나 성인이 편찬한 것을 한자로 ‘경’이라 하였습니다. 유교의 시경, 서경, 역경 등의 표현이 그렇고 불경도 ‘성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냥 ‘경’이라고 해도 충분하지만, ‘거룩한 책’이라고 더 강조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의미 중복이지만 이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의 경전도 ‘성경’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합니다. ‘성서’라는 표현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일본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불교에서 불경을 ‘성경’이라고 하니, 기독교의 경전은 ‘성서’라고 하여 혼동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성서’를 직역하면 ‘거룩한 책’으로서, ‘성경’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성경’이라고 하든 ‘성서’라고 하든, 다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지상 명령’이라고들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을 ‘땅 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은 ‘가장 높은 위’라는 뜻입니다. 명령 가운데 최고로 높은 명령,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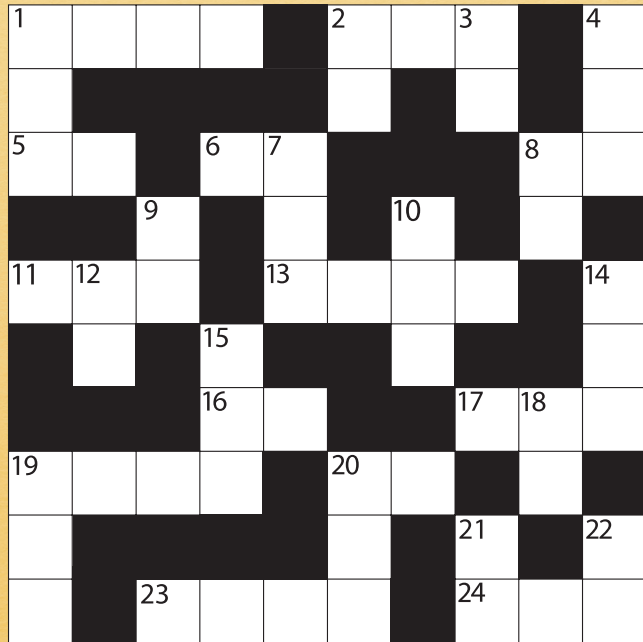
채찍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보통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로마의 채찍은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무수히 박혀 있어서 그것에 맞으면 살점이 마구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함글함글 /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예레미야애가 편

이번 호는 <예레미야애가> 편입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저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 예레미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의 발문에 해당되는 책으로, 예루살렘의 파괴와 몰락을 슬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1호 예레미야 편 정답



가로 힌트

1.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르는 이름. 솔로몬 사후에는 바벨론 포로 후 회복된 공동체를 이르기에도 했다. (애 2:1)
2.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뿐 아니라 애굽과 블레셋 등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애 1:4)
5.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 같은 한글 어휘이지만 '사람의 아들' 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다. (애 3:22)
6.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애 2:9)
8. 고양이과에 속하는 육식동물. <라이언 킹>의 주인공 동물이다. (애 3:10)
11. 자극히 존귀하신 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 3:35)
13. 산에서 가장 높은 곳. '봉우리' 라고도 한다. (애 4:19)
16. 어떤 일을 하느라고 애를 씀. "고통과 ○○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애 3:5)
17. 눈의 한 가운데에 있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 '동공' 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나 물건을 상징한다. (애 2:18)
19. 남의 놀림이나 조롱을 받는 대상. 또는 남을 놀리거나 조롱을 할 이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애 3:14)
20. 하늘에서 수증기가 모여 이루어진 기상 현상. 이것에서 비나 눈이 형성되어 내린다. (애 3:44)
23. 질그릇을 빚는 장인. '질그릇' 이란 진흙으로 만들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한다. (애 4:2)
24. 불을 때기 위해 만든 움푹한 공간. 위에 솔을 얹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방으로 열기가 통하도록 하여 난방을 하기도 한다. (애 5:10)

세로 힌트

1. 어떤 민족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애 1:10)
2.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단.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태웠다. (애 2:7)
3. 교회에서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 구약 시대에는 연륜과 지혜가 있어 특별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애 4:16)
4.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의 능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애 2:14)
7.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언덕. 초기에는 이 언덕만을 지칭했으나 이후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이 산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애 5:18)
8. 주로 금속으로 만든 고리를 여럿 이어서 만든 줄. 금으로 만든 것은 장식으로 쓰였지만, 쇠로 만든 것은 죄인을 결박하는 데 사용되었다. (애 3:7)
9. 인간이나 동물의 소화기관 중 일부.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대롱 모양의 장기를 말한다. (애 2:11)
10. 대를 이어, 여러 세대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이르나이다" (애 5:19)
12. 어떤 사람을 받들어 공경함. 인품, 사상, 행적 등에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을 뜻한다. (애 5:12)
14. 적이 되는 자. 맞서 겨루어야 하는 상대나 세력을 말한다. (애 2:17)
15. 수리과에 속하며 머리에 깃털이 없는 큰 새. 절벽과 같은 높은 곳에 동지를 틀고 서식하며 주로 죽은 동물을 먹는다. (애 4:19)
18. 크지 않은 산. 마을 근처에 있는 높지 않은 언덕이나 산을 부르는 말이다. (애 2:6)
19. 동그랗고 작은 돌. 박상규라는 가수가 1975년 발표한 대중가요의 제목이기도 하다. (애 3:16)
20. 땅이 좀 큰 규모로 움푹 패인 곳. 사람이나 동물이 빠질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애 3:53)
21. 부모가 없는 자식. '외로운 아이' 라는 뜻으로, 대개 어릴 때 부모를 여의거나 잃은 자식을 의미한다. (애 5:3)
22. 어린 사람을 두루 부르는 말. 어른이 아닌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도 쓰인다. (애 5:13)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2

수요예배의 모든 것

지난해 실시한 창립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 이후, 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었습니다. <함글함글> 477호(2023.12.31.)에 포괄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했지만, 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팀의 주제별 심층분석을 연재합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두 번째 심층분석의 주제는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도 한국 개신교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나 성공회에서는 수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헌법에는 ‘제4편 예배와 예식’에 ‘4-4. 수요기도회: 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 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요예배는 ‘수요기도회’라고도 부르며, 주일과 주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수요일에 다시 한번 신앙 점검을 하는 예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2018년 설문조사에서 수요예배에 월 2회 이상 참석하는 분들은 13%였는데, 2023년에는 7%로 거의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2018년과 2023년에 걸쳐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도 9%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월 1회 정도 참석하는 분들이 단순 통계로는 4%에서 5%로, 2018년과 2023년 응답자는 4%에서 7%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월 참석 회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응답자 가운데, 수요예배에 월 1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12%입니다. 남성에서는 66~75세(9.5%)와 61~65세(9%)가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40~49세(5%)와 50~60세(5%)는 중간, 76세 이상(3%)과 30~39세(2%)는 가장 낮은 참석률을 보입니다.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 높은 직책에 이르면서 일차적으로 참석률이 높아지고, 정년 퇴임한 후 참석률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61~65세(20%), 66~75세(17%), 50~60세(15%) 순으로 참석률이 높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현격하게 낮은 참석률을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낮은 직책으로 근무하거나 저학년 자녀 양육 시기에 참석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요예배의 참석률은 직장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교회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와 가까운 송파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응답자(13%)에 비해, 거주지와 교회의 거리가 멀수록 참석률이 감소하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항존직(25%)이거나 사역부서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24%)는 매월 1회 이상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분들(7%)보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응답자의 참석률(14%)은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5%)의 거의 3배에 이릅니다.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수요예배 참석률(15%)은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참석률(9%)보다 높는데, 이는 새벽예배와 같은 참석률입니다. 교회가 교인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의 참석률(17%)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인의 참석률(11%)보다 높았습니다. 교회의 목회 방향인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인의 참석률(14%)도 그렇지 않은 교인의 참석률(6%)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예배의 참석은 직장 상황이나 자녀 양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 생활의 기간이 길고 교회 활동에 헌신적인 분들 가운데 교회와 거주지와의 거리가 가까운 분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팀

2024년 각 여전도회별 연락처 및 협력교회

	해당연도	회장	연락처	협력교회
1 여전도회	51년 이전	나경희 권사	010-7229-9481	광야의교회
2 여전도회	52년 ~ 55년	고유자 권사	010-8591-0419	예제교회
3 여전도회	56년 ~ 59년	신영숙 권사	010-5205-4181	송우제일교회
4 여전도회	60년 ~ 65년	이왕희 권사	010-5678-6463	삼성교회
5 여전도회	66년 ~ 71년	박성연 집사	010-3455-2661	세린교회
6 여전도회	72년 이후	신정미 집사	010-8328-0208	늘푸른교회

교회일정

4/7 (주일)	사랑의 헌혈행사
4/13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4/14 (주일)	정기당회
4/21 (주일)	장애인주일
4/24 (수)	1/4분기 제직회

알립니다

• 사랑의 헌혈행사

일시 4/7(주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소 교회 본당 앞 적십자 헌혈버스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교인(만 16~69세)
주관 남녀선교회
* 참여하실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신병 진중 세례식

일시 4/13(토) 오전 7:30(교회 로비)
장소 15사단 신병교육대대(강원도 화천)
문의 복향수 안수집사(010.5071.4411)

• 남선교회 주관 양재천 걷기대회

일시 4/20(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양재천 둘레길(2시간 소요)
대상 주님의교회 교인 및 가족 누구나
신청 1층 로비 헬프데스크
회비 1만원(간식, 기념품, 중식 제공)
문의 송재승 안수집사(010.4617.7641)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